

特別寄稿

## IT 여성 전문인력 육성방안

김혜영

차례

- I. IT 여성 전문인력 육성 필요성
- II. 주변인(또는 이용자)이 아닌 주류(핵심전문인력)로 여성인력육성
- III. IT여성전문인력 육성방안

여성 IT 전문인력 육성은 사회제도와 조직문화가 여성인력을 수용하도록 개선되고 수요자인 기업이 여성인력을 유치하고 보유하려는 시도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통신학회 정보통신여성위원회에서는 사회제도와 조직문화적 측면에서 여성의 IT산업진출장애에 대한 논의는 여성의 사회진출관련 광범위한 이슈를 포함하게 됨으로 본고에서는 IT 여성 전문인력 육성방안모색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IT 전문인력범위를 살펴보고 주변인이 아닌 핵심인력으로 육성키 위한 방안으로 장기적 추진방향과 산·학·연·관 협력추진활동을 제언한다.

### I. IT 여성 전문인력 육성 필요성

정보통신기술산업은 외환위기에 처해 있던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보통신 기술혁신은 새로운 정보기술 직업을 만들고 다른 직업에도 정보기술을 필요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시대에서의 경제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앞으로 정보통신분야는 새로운 직업과 더욱 높은 임금의 직업을 창출할 것임은 분명하다.

정보통신인력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서 미국등

주요 IT 선진국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위한 IT 인적자원 개발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IT산업 고급 전문인력 양성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급한 과제이다.

사실 IT 여성 전문인력 육성은 국가적으로 하이테크 인력의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고소득 하이테크 취업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슈이다. 그러나 여성의 IT talent 개발은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과학 기술 분야 진입에 제약이 있어 남성에 비해 어려운

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여성의 사회진출은 전체 47퍼센트이나 IT분야는 29퍼센트이며 캐나다는 25퍼센트이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사업체내 종사자수는 35퍼센트가 여성인력이나, 전체여성인력의 76퍼센트가 정보통신기기제조업에 종사하며 대부분 생산직근로자이다(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참조).

더욱이 우리나라 정보통신 벤처업계의 여성CEO는 3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이다.

## II. 주변인(또는 이용자)이 아닌 주류(핵심전문인력)로 여성인력육성

1999년 4월 미국의 대학여성교육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는 여학생들을 새로운 컴퓨터시대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는데, 하이테크 직업에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커져 가는데 대한 우려로 기술, 성, 교육의 상관관계를 2년간에 걸쳐 연구한 내용으로 정보통신산업이 신경제의 엔진을 담당하고 있음에 비추어 정보통신인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숫자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은 우려할 만한 사항임을 지적하고 여성의 정보통신분야 진출 장애요인과 여성의 정보화교육에 대한 권고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컴퓨터 이용자만으로서가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의 설계자와 개발자로 여학생들의 상상력을 돕고 신기술에 대한 흥미를 자극해주도록 여학생들을 교육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며 특히 고학력여성비율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여학생들의 공과대학 진학이 여전히 저조한 실정에 있어 전문가 시대로서 상대적으로 임금격차가 적고 고소득 하이테크직업에의 여성인력진출은 계속 낮을 수밖에 없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보화사업을 살펴보면 여성정보DB 구축과 주부100만 인터넷교육사업, 컴퓨터 실무교육

등 이용자로서 여성정보화 추진에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여성개발원 자료 참조).

정보통신기술 주류 핵심전문인력으로 여성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IT 핵심직업을 분류하고 업계가 요구하는 인력수요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 통계나 수요인력에 대한 세분화된 예측이 필요하다.

미국 상무부는 1999년 6월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흥미를 끄는 점은 핵심 IT직업(Core IT Workforce)을 컴퓨터 과학자(computer scientists), 컴퓨터 엔지니어(computer engineers), 시스템 분석가(system analysts),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분류하여 상세히 정의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이 분류한 이유는 첫째, IT인력에 대한 국가적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주로 고난도 기술(higher-end skills)을 수반하는 인력에 있어 IT 핵심직업을 고급 기술과 교육적 요구사항으로 다른 IT 및 IT관련 직업과 구별하고 있다. 둘째, IT 응용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데이터 이용가능성으로 제한되기 때문인데, 미국 노동부는 상기 분류된 핵심 IT인력에 대한 고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노동부의 노동통계국과 상무부의 인구조사국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구조사는 핵심 IT 근로자들에 대한 통계를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및 과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2개 직업으로 분류하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컴퓨터 엔지니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IT 전문인력 양성에는 5년 내지 10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장기적 방향에서 여성의 IT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방안강구와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III. IT여성전문인력 육성방안

IT전문인력 양성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장

기적 관점에서 IT분야에 대한 여학생들의 조기교육이 바람직하다. 과학과 수학과목에 여학생들의 재능 개발을 위하여 조기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공과대학 지원장려를 위하여 IT직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IT분야 여성들의 성공적 사례를 제시하는 role-model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학교, 정부, 업계의 협력체계 구축과 각각 추진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학교의 장에서 IT 산업홍보 기회의 마련, 초·중·고교 여학생들의 IT 업체 견학 기회 마련, 대학교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방학 기간 중 여학생들 훈련과정 제공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업계와 정부의 지원방안이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IT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여대생과 여성 취업자들의 IT 분야 전직을 지원하기 Career Change 지원으로 전문인력양성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각종 훈련프로그램과 시설을 종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며, 학교 시설, 기업 시설, 정부 산하 훈련 센터 개방을 위하여 정부의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여대생(전문대생 포함)의 훈련 지원, 특히 이공계 여대생의 IT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마련으로 업계가 요구하는 고급 IT전문인력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취업자들의 IT분야 전직 지원을 위한 특별훈련 프로그램 마련을 위하여 대학교(또는 전문대학교) 훈련프로그램에 정부와 업계는 훈련전문가 및 시설 장비 등 지원하며,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훈련프로그램을 마련, 정보통신업계 및 정부의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활용 가능 하도록 함으로서 정부 및 업계가 협력지원으로 장기적 체계적 훈련프로그램을 지향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